



남부고시온라인 나래국어 이유진 2014 기상직 9급 국어 해설

문 1. 다음 밑줄 친 조사의 쓰임이 올바른 것은?1)

- ① 그 신문사가 가장 먼저 심층 보도 기사를 실었다.
- ② 모두 자기들 주장만이 옳다라고 우기며 타협하지 않았다.
- ③ 정부는 이 문제를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 ④ 그가 이 채배법을 착안하게 된 것은 경제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 2. 어문규정에 맞는 것끼리 묶인 것은?2)

- ① 심부름꾼, 콧빼기, 장고
- ② 짜깁기, 이래라저래라, 가여운
- ③ 한 간, 깨트리다, 뚝딱
- ④ 안 돼요, 하지 말아라, 장미빛

문 3. 다음 밑줄 친 절 중 문법적 특성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3)

- ① 철수가 먹은 사과가 가장 예쁘고 달았다.
- ② 영희는 시장에서 과일도 사고 채소도 샀다.
- ③ 어머니는 오빠가 건강히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셨다.
- ④ 친구가 나에게 오늘 모임은 재미있었냐고 물어보았다.

문 4. 다음 중 객체 높임법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4)

- ① 어머니께 이 편지를 전해 드리고 오너라.
- ② 할머니께서는 잠귀가 매우 밝으신 편입니다.
- ③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좀 다녀오도록 해요.
- ④ 이번 일요일에는 할아버지를 꼭 뵙고 오도록 해라.

문 5. 음운 변동의 원인을 ㉠과 ㉡으로 구분할 때, 변동의 원인이 이질적인 하나는?5)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발음을 좀 더 쉽게 하려는 ㉠ 경제성의 원리에 의한 것과 표현 강화를 위한 ㉡표현 효과의 원리에 의한 것이 있다. 전자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운의 동화, 음운의 축약과 탈락이 있고, 후자에는 된소리되기와 사잇소리 현상 등이 있다.

- ① 만누이 ② 굳히다 ③ 잡히다 ④ 집비둘기

문 6. 다음 중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6)

- ① 이번 ∨ 일은 ∨ 너와 ∨ 나만이 ∨ 알고 ∨ 있다.
- ② 나는 ∨ 동생을 ∨ 위해 ∨ 옷 ∨ 한벌을 ∨ 샀다.
- ③ 구름이 ∨ 낀 ∨ 하늘을 ∨ 보니 ∨ 비가 ∨ 올듯도 ∨ 하다.
- ④ 그녀는 ∨ 매사에 ∨ 잘 ∨ 아는척 ∨ 한다.

문 7. 밑줄 친 변화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7)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와 달리 마찰음인 ‘ㄹ’([ʎ]), ‘ㄷ’([ʒ])와 같은 자음이 더 있었다. 이 중에서 ‘ㄹ’은 15세기 말에 이르러 반모음 ‘ㄴ’([ʎ])로 바뀌었다. ‘더벅>더위’, ‘쉬툰>쉬운’ 등에서 그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다. ‘ㄷ’은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걸쳐 소멸하였다. ‘ㅁ슴>마음’, ‘처섬>처음’ 등에서 그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다.

- ① 잡다 ② 반갑다 ③ 배우다 ④ 들어오다

문 8. 다음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글이다. 밑줄 친 부분을 고쳐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8)

- ① 이번 개편을 통해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도록 조직이 짜여 있어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건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조직이 짜여져 있어
- ② 이 게시판은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개설하였습니다. → 이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개설한 것입니다.
- ③ 저희 ○○○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④ 저희는 제반 법률적·행정적 조치 기한을 충실하게 준수하되, 가능한 신속히 조사를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가능한 한 신속히 조사를 마치도록

문 9. 다음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표현방식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9)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글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정지용, ‘향수’

- ①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
- ②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금(金)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아침이면/세상은 개벽(開闢)을 한다. - 박남수, ‘아침 이미지’
- ③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울고 간 그의 영혼/들에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 신동엽, ‘산에 언덕에’
- ④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鐵柵)이 바람에 나부끼고/그 위에 셀로판지(紙)로 만든 구름이 하나/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호울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 김광균, ‘추일서정’

문 10.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이것’의 표현방법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은?¹⁰⁾

이것은 다른 의미를 암시하기 위해 말이나 동음이의어를 해학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방법으로, 말이나 문자를 소재로 하는 유희를 의미한다. 이 때 이것은 이중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칭을 중심으로 사용되거나 유사한 음운을 반복하기도 한다. 낱말의 소리들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발생한 이것은 차츰 해학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 ① 잔 들고 혼자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온다고 반가움이 이려하랴
말씀도 웃음도 안도 못내 좋아 하노라 - 윤선도
- ②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감을 자랑마라
일도 창해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 황진이
- ③ 매아미 땀다 울고 쓰르라미 쓰다 우네
산채를 땀다가 박주를 쓰다는가
우리는 초야에 문혔으니 땀 쓴 줄 몰라라 - 이정신
- ④ 북창이 맑다거늘 우장 없이 길을 가니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찬비로다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얼어 잘까 하노라 - 임제

문 11. (가)와 (나)의 두 사례를 통해 주장하려고 하는 바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¹¹⁾

(가)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리처드 닉슨이 한창 사임 압력을 받던 당시의 일이다. 이때 그는 TV에 나와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닉슨은 전국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 순간 모두가 그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 한 납품업자가 단무지 자투리를 유명 식품회사의 만두 소 재료로 납품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쓰레기 만두’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여론은 들끓었고 소비자들은 분노했다. 불뚝은 이런 만두소를 쓰지 않은 멸명한 만두회사로까지 옮겨 붙었다. 불매운동이 시작됐다. 만두 시장은 뽕뽕 얼어붙었다. 매출 급감을 견디지 못한 회사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다.

- ① 언론의 과장 보도는 사람들의 비판력을 흐리게 한다.
- ② 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여론의 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③ 많은 사람들이 단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 ④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달리 표현에 의해 다른 생각이 전달될 수 있다.

문 12.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알맞은 것은?¹²⁾

(가) 세계 최저의 문맹률이라는 자랑스러운 현상에 대해 우리는 낮익은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한국인 높은 교육열, 학령기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잘 짜여진 공교육 제도 등이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가장 낮은 문맹률을 달성한 원인으로 이야기된다.
(나) 40년을 격하여 드러난 한국 문맹률의 극적인 반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40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 국민들의 읽고 쓰는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된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은 문해력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쫓아가는 데 있다.
(다) 그러나 한국 문맹률의 실상은 무엇일까? 한국교육 개발원의 2002년 보고서에 따르면 19세 이상인 우리나라 전체 성인 인구의 24.8%는 생활하는데에서 읽고, 쓰기, 셈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라) 1950년대 문맹 퇴치 운동이 ‘신화적 성공’을 거두면서 1959년 우리나라 비문해율은 4.1%, 그리고 1960년도 의무교육 취학률은 96%에 달했다고 한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면서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문맹률을 조사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더 이상 기초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 ① (나) - (라) - (가) - (다)
- ② (나) - (라) - (다) - (가)
- ③ (라) - (다) - (나) - (가)
- ④ (라) - (가) - (다) - (나)

문 13. 다음 글의 내용으로 볼 때, 밑줄 친 내용을 의미하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¹³⁾

언뜻 개였다가 다시 비가 오고 비 오다가 다시 개니,
하늘의 도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세상 인정이라.
나를 기러 주던 이 문득 돌이켜 나를 헐뜯고,
공명을 피하던 이 도리어 스스로 공명을 구함이라.
꽃이 피고 지든 봄이 무슨 상관이랴.
구름 가고 구름 오되, 산은 다투지 않음이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만드시 기억해 알아 두라.
기쁨을 취하려 한들, 평생 즐거움 얻을 곳은 없다는 것을.
- 김시습, ‘사청사우(乍晴乍雨)’

- ① 각주구검(刻舟求劍)
- ② 호가호위(狐假虎威)
- ③ 환해풍파(宦海風波)
- ④ 염량세태(炎涼世態)

문 14.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4)

이바 니웃드라, 山水(산수) 구경 가자스라.
踏靑(답청)으란 오늘 흐고, 浴沂(욕기)란 來日(내일) 흐새.
아춤에 採山(채산)흐고, 나조히 釣水(조수)흐새.
긋 괴여 녀은 술은 葛巾(갈건)으로 밧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 거, 수 노코 먹으리라.
和風(화풍)이 건듯 부러 綠水(녹수)를 건너오니,
淸香(청향)은 잔에 지고, 落紅(낙홍)은 옷새 진다.

<중략>

功名(공명)도 날 쇠우고, 富貴(부귀)도 날 쇠우니,
淸風明月(청풍명월) 外(외)에 었던 벗이 잇스올고,
簞瓢陋巷(단표누항)에 호튼 혜음 아니 흐닉.
아모타, 百年行樂(백년 행락)이 이만흔들 었지흐리.

- 정극인, '상춘곡'

- ① 연속된 4음보의 율격으로 안정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으로 화자의 인생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시적 화자는 자연의 영원함을 통해 인간의 유한함을 자각하고 있다.
- ④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 형식과 유사하여 정격가사임을 알 수 있다.

문 15. 다음 글에 사용된 서술 방법을 <보기>에서 찾아 묶은 것은?15)

세잔에게는 단순히 자연을 모방하거나 자연으로부터 받은 인상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모네처럼 사물의 표현에 나타난 빛과 분위기를 표현하려 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원근법을 이용한 공간적 속임수를 쓰려고 하지도 않았다. 세잔은 사물의 근본, 색채, 그리고 빛의 근본을 파헤치고자 했다. 서로 촘촘하게 엮힌 색 표면은 세잔이 즐겨 추구하는 방식이다. 그는 색채를 변형하여 나무나 집 같은 그림 속 요소를 모방하려 한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만의 색채 논리에 입각한 일종의 그림 언어를 만들었고, 이 언어로 그림 요소를 번역했다. 세잔은 마치 작곡가처럼 음계 즉 특정한 색채를 선택한 후 선택한 음(색)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다른 분위기를 자아내는 화음을 구축했다. 각각의 붓질 방향은 그림 속 형태를 더욱 탄탄하게 받쳐주는 듯이 느껴진다.

<보기>

- 가. 어떤 범위를 규정짓거나 개념을 명제의 형식으로 진술하여 설명한다.
- 나. 공통된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 혹은 구분하여 설명한다.
- 다.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 라. 대상의 구성요소나 부분의 면면을 자세하게 분석하여 설명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다, 라

문 1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6)

(가) 가차히 와 보니 과연 나의 짐작대로 우리 수탉이 피를 흘리고 거의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닭도 닭이려니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없이 고대로 앉아서 호드기만 부는 그 꼴에 더욱 치가 떨린다. 동리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격실격실이 일 잘하고 얼굴 이쁜 계집애인줄 알았더니, 시방 보니까 그 눈썹이 꼭 여호 새끼 같다. 나는 대뜸 달려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수탉을 단매로 때려 었었다. 닭은 폭 었어진 채 다리 하나 꼼짝 못하고 그대로 죽어 버렸다. 그리고 나는 멍하니 었다가 점순이가 매섭게 눈을 흘뜨고 닥치는 바람에 뒤로 벌렁 자빠졌다.

- 김유정, '동백꽃'

(나) 저녁때였다. 닭이 우리 안에 들어 각각 잠자리를 차지하였을 때 마을 샅던 수탉이 어슬어슬 돌아왔다. 또 싸운 모양이었다. 찢어진 맨드라미에는 피가 생생하고 통겨진 쪽지의 것이 꺼꾸로 뻗었다. 다리를 저는 것은 일반이나 걸어오는 방향이 단정치 못하다. 자세히 보니 눈이 한쪽 찌그러진 것이었다. 감긴 눈으로 피가 흘러 털을 물들였다. 참혹한 꼴이었다. 측은한 생각은 금시에 미움의 감정으로 변하였다. 을손은 불같은 화가 버럭 났다.

- 이효석, '수탉'

- ① (가)와 (나)보다 더 현실감과 박진감을 주는 것은 구체적이고 묘사적인 문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② (가)에서는 보여주기 방식을, (나)에서는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여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에서는 시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에서는 서술자가 객관적 태도로 인물의 행동이나 외부적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문 17. 다음 글에서 대립적인 상징의 짝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은?17)

엄마는 내게 피아노를 사줬다. 읍내에서부터 달려온 파란트럭이 집 앞에 었을 때, 엄마는 무척 기뻐했던 기억이 난다. 세탁기도 냉장고도 아닌 피아노라니. 어쩐지 우리 삶의 질이 한 뼘쯤 세련돼진 것 같았다. 피아노는 노릇한 원목으로 돼, 학원에 있는 어떤 것보다 좋아 보였다. 원목 위에 양각된 우아한 넝쿨무늬, 은은한 광택의 금속 페달, 건반 위에 깔린 레드 카펫은 또 얼마나 선정적인 빛깔이던지. 그것은 우리 집에 있는 가재들과 때깔부터 달랐다. 다만 좀 멋쩍은 것은 피아노가 가정집 '거실'이 아닌, 만두 가게 안에 놓인다는 사실이었다. 우리 가족은 생계와 주거를 한 건물 안에서 해결하고 었었다. 낮에는 방에 손님을 들이고, 밤에는 식구들이 이불을 펴고 자는 식으로 말이다. 피아노는 나와 언니가 쓰는 작은방에 놓였다. 안방은 주방을, 작은방은 홀을 마주보고 었었다.

나는 오후 내 가게에 붙어 피아노를 연주했다. 율림폭을 크게 해주는 오른쪽 페달을 밟고, 밧을 부러 '소녀의 기도'나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와 같은 곡을 말이다. 짬뽕에선 수증기가 폭폭 나고, 홀에서는 장사꾼과 농부들이 흙 묻은 장화를 신은 채 우적 우적 만두를 씹고 었는 공간에서, 누구라도 만두를 삼키다 말고 울고 가게 만들었을 그런 연주를,

- 김애란, '도도한 생활'

- ① 학원 - 가정집 ② 피아노 - 냉장고
- ③ 거실 - 만두 가게 ④ 소녀의 기도 - 수증기

문 18. 다음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18)

우리신문이 한문은 아니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거슨 상하 귀천이 다보게 흠이라. 또 국문을 이러케 귀절을 세여 쓴즉 아모라도 이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속에 잇는 말을 자셰이 알아 보게 흠이라.

각국에서는 사름들이 남녀 무론하고 본국 국문을 먼저 익화 능통후 후에야 외국 글을 익오는 법인디 조선서는 조선 국문은 아니 익오트릭도 한문만 공부 하는 까들에 국문을 잘 아는 사름이 드물미라 조선 국문하고 한문하고 비교하여 보면 조선국문이 한문 보다 얼마가 나흔거시 무어신고하니 첫지는 익호기가 쉬흔이 요흔 글이요 둘지는 이글이 조선글이니 조선 인민들이 알아서 익스를 한문디신 국문으로 써야 상하 귀천이 모도보고 알아보기가 쉬홀터이라. 한문만 늘써 버릇하고 국문은 폐흔 까들에 국문만쓴 글을 조선 인민이 도로혀 잘 아리보지 못하고 한문을 잘 알아보니 그게 엇지 한심치 아니하리오.

- 독립신문 창간사

- ① 한문보다 국문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더 많다.
- ② 조선의 사람들은 국문보다 한문을 더 중요시하였다.
- ③ 국문을 사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재를 뽑아야 한다.
- ④ 국문을 쓸 때 띄어쓰기를 하면 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문 19. 다음 글을 읽고 해결할 수 있는 의문점과 거리가 먼 것은?19)

근대 과학의 성립과 더불어 과학과 문학의 기능은 재현과 표현으로 구별되어 왔다. 과학이 세계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반하여 문학은 세계에 대한 작가의 정서를 드러내 줄 뿐이라는 것이다. 과학적 텍스트의 내용이 사실적 서술인데 반하여 소설이나 희곡과 같은 문학 텍스트의 세계는 허구적 상상물이다.

그러나 시의 경우는 다르다. 시는 허구가 아니며, 시인이 시에서 의도하는 것은 어떤 상상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는데 있지 않다. 그는 자신이 발견했거나 경험했다고 확인하는 어떤 객관적 진리를 재현해 보이려는 것이다. 그가 재현하고자 하는 진리가 자신의 내면적 세계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시적 의도는 어디까지나 인지적이며 그 텍스트가 나타내는 것은 외적 혹은 내적 세계에 대한 정보이다. 인지적이라는 점에서 시의 의도는 과학의 의도와 가깝고 소설이나 희곡의 의도와는 멀다.

이처럼 시와 과학은 세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표상하고자 하는 동일한 의도를 갖지만, 인식의 대상과 목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서로 다르다.

- ① 과학의 의도는 시의 의도와 유사한 점이 있는가?
- ② 시인이 재현하려는 세계는 무엇인가?
- ③ 시인과 과학자가 세계를 인식하는 목적과 그 대상은 어떻게 다른가?
- ④ 시가 내용면에서 소설이나 희곡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문 20. 다음 글과 가장 관련이 높은 주장은?20)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한다 것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다른 창작 활동들에 비해 좀 더 소박하긴 하지만 결코 그것들에 뒤지지 않는 진정한 창조활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렇게 창작의 요구에 부응하는 최초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면,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런 학습에 가치를 부여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부과된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그것을 전수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헌데, 학교에서 우리의 학생들은 책을 읽는 법, 즉 책에 대해 말하는 법은 배우지만 묘하게도 읽지 않은 책에 대해 의사를 표현하는 법은 그들의 학습 프로그램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어떤 책에 대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책을 읽어야 한다는 가정이 한 번도 의문시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시험에서 '알지' 못하는 어떤 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신들의 견해를 표명하기 위한 어떤 방법도 찾아낼 수 없을 때 혼란에 빠진다고 해서 어찌 놀랄 수 있는가?

그런 혼란은 책을 신성시하는 태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교육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해 '책을 꾸며낼' 권리가 학생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다. 텍스트에 대한 존중과 수정 불가의 금기에 마비 당하는데다 텍스트를 암송하거나 그것이 '답고 있는'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속박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내적 일탈 능력을 상실하고 상상력이 유익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상상력에 호소하는 것을 스스로 금해 버린다.

- ①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을 창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 ② 독서하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어떤 책을 읽느냐보다는 책을 읽는 행위 자체에서 독서의 의미를 찾아야 진정한 독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④ 좋은 책을 골라 읽지 않고 무분별하게 독서하는 것은 오히려 독자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방해하는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

♥ 3월 개강 이유진의 특별한 국가직 모의고사 ♥

매주 2회의 완벽한 실전 모의고사

(기출 난도 수준 1회+고난도 1회)

+ 변화하는 국가직에 맞춤 독해 플러스 문항!

국가직은 55점을 독해에서 잡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족했던 독해 훈련을 동형모의고사반에서 잡습니다!

이게 가능해? 받아 본 적 없는 개인별 맞춤 콘텐츠!

현장 수장시 개인별 약점 오답문제지를 만들어 드립니다

(내가 틀린 문제와 유사 유형을 더 풀어보자!)

1) ③ 무정명사 '일본'은 부사격 조사로 '에게'를 사용할 수 없고, '에'를 사용해야 한다.

[오답해설]

① 조직이나 단체가 주어일 때에는 주격 조사로 '에서'를 쓴다. 따라서 '신문사에서'로 고쳐야 한다.

② 마음표를 쓰지 않은 간접 인용이므로 간접 인용 조사 '고'를 쓴다. 따라서 '옳다'고 고쳐야 한다.

④ '어떤 일을 주의하여 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잡다'는 '착안하다'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조사 '-에'를 사용하여 '재배법'에'로 고쳐야 한다.

2) ② 사전에 '짜집다'는 있어도, '짜집다'라는 단어는 올라 있지 않다. 따라서 '직물의 찢어진 곳을 그 감의 울을 살려 본디대로 흠집 없이 짜서 깎는 일'을 일컫는 말은 '짜집기'가 옳다. 흔히 언중들이 쓰는 말은 '짜집기'인데, 이는 잘못이다.

'이리하여라 저리하여라'가 줄어든 말로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가엾다, 가엾다'는 모두 널리 쓰이므로 둘 다 표준어로 삼는다. 활용형은 '가어운', '가염은'이다.

[오답해설]

① 거센소리나 된소리 앞에서 'ㅅ'을 첨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코빼기'가 올바른 표현이다.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이를 표준어로 삼으므로, '장구'가 올바른 표현이다.

③ '초가삼간', '고깃간', '고물간', '마구간'과 같이 굳어진 표현을 제외하고는 '칸막이, 빈칸, 방 한 칸'과 같이 '칸'으로 써야 한다.

'깨뜨리다'와 '깨트리다' 모두 표준어이다.

'뿔뿔'의 '뿔'은 '뿔'의 잘못이므로, '뿔뿔이' 올바른 표현이다.

④ '금치'의 의미를 가지는 '안 돼'는 띄어 쓴다. '되어'의 준 형태인 '돼'에 높임의 보조사 '요'를 쓰면 '돼요'가 된다.

'말다'에 명령형 어미 '-아(라)'가 결합하는 경우 '마, 마라'가 된다. 2015년 개정으로 '말아, 말아라'도 가능해졌다.

'장미빛'은 한자어와 고유어의 합성어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사 이시옷을 적어 '장밋빛'으로 적는다.

3) ② '영회는 시장에서 과일을 샀다.'라는 문장이 '영회는 채소를 샀다.'라는 문장과 대등하게 이어졌다. 밑줄 친 부분은 이어진 문장의 앞 절이다.

[오답해설]

나머지는 모두 안온 안긴 문장의 안긴 절이다.

① '철수가 먹은' 사과를 꾸며주는 관계 관형절이다.

③ '오빠가 건강히 돌아오길'은 문장의 목적어로 기능하는 명사절(오빠가 건강히 돌아오기)이다.

④ '오늘 모임은 재밌었나고'는 인용절이다.

4) ② 객체 높임은 문장의 부사어인 목적어를 높이는 것으로, 주로 높임의 의미가 있는 특수한 서술어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②의 '밝으신'은 할머니의 '잠귀'를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높인 것이다.

[오답해설]

① '드리다'를 사용하여 부사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③ '모시다'를 사용하여 목적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④ '뵙다'를 사용하여 목적어인 '할아버님'을 높이고 있다.

5) ④ '집비둘기[집뻘뻘기]'는 안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가 만나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으로, '㉠표현효과의 원리'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만누이[만누이]는 자음동화가 일어난 것으로, '㉠경제성의 원리'에 의한 것이다.

② 굳히다[구치다]는 구개음화가 일어난 것으로, '㉠경제성의 원리'에 의한 것이다.

③ 잡히다[자피다]는 자음축약이 일어난 것으로, '㉠경제성의 원리'에 의한 것이다.

6) ① 체언 뒤에 이어진 '만'은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오답 해설]

② 수 관형사와 단위 명사는 띄어 쓴다.

→ 나는 √동생을 √위해 √웃 √한 √벌을 √샀다.

③ 의존 명사와 접사 '-하다'가 결합한 보조 용언 '듯하다'의 가운데 조사가 끼면 보조 용언의 자격을 잃고 의존 명사 '듯'과 동사 '하다'로 분리된다.

→ 구름이 √진 √하늘을 √보니 √비가 √올 √듯도 √하다.

④ '아는'은 본 용언, '척하다'는 보조 용언이다. '아는 √척하다'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 '아는척하다'로 붙여 쓰는 것은 허용이다.

→ 그녀는 √매사에 √잘 √아는 √척한다.(원칙)

그녀는 √매사에 √잘 √아는척한다.(허용)

7) ② 중세 국어의 '빙'은 현대 국어에서 '버'불규칙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빙'이 반모음으로 변화한 흔적은 '버' 불규칙 용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반갑다'는 '반가운', '반가우니', '반가워서', '반갑고' 등으로 변화하는 '버' 불규칙 용언이다.

[오답해설]

① '잡다'는 '잡아서', '잡으니', '잡고'로 변화하는 '버' 규칙 용언이다.

③ '배우다'는 '배워서', '배우니', '배우고' 등으로 변화하는 'ㄷ' 규칙 용언이다.

④ '들어오다'는 '-어라'가 '-너라'로 바뀌는 '너라' 불규칙 용언이다.

8) ① '짜여지다'는 '짜-+-'이(피동접미사)-+-'어지다(피동보조용언)'의 구조로, 이중 피동이 사용된 경우이다. 이중 피동은 문법에 어긋나므로 '짜여 있어'가 올바른 표현이다.

9) ③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10) ①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11) ④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12) ④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13) ④ 김시습의 <사청사우>는 변덕스러운 세상 인심을 비판하는 한시이다.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자성어는 '세력이 있을 때는 아첨하며 따르고 세력이 없어지면 푸대접하는 세상 인심'을 뜻하는 ④ 염량세태(炎凉世態)이다.

[오답 해설]

① 각주구검(刻舟求劍):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

② 호가호위(狐假虎威):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③ 환해풍파(宦海風波): 벼슬살이에서 겪는 온갖 험한 일

14) ③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15) ④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16) ①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17) ①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18) ③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19) ③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

20) ① <해설은 남부고시 무료특강 기출외전에서!>